

기념일 신드롬



홍은희/중앙일보 논설위원

현 대인의 특성 가운데 하나는 각종 이벤트를 만들어 즐기는 것이다. 사랑 고백은 물론 청혼까지도 인적이 드문 거리에서 달빛을 받으며 포옹을 나누거나 영화 속에 나오는 듯한 분위기 만점의 카페에서 뜨거운 눈빛을 교환하며 속삭이는 ‘단 둘의 은밀한 시대’가 아니다. 대로의 전광판에 ‘사랑한다’고 광고를 하거나 많은 청중의 눈길도 아랑곳하지 않고 무작정 무대에 뛰어 올라 “결혼해 줘”를 외치는 ‘깜짝 이벤트’라야 제 격이 됐다.

‘오늘도 무사히’가 아니라 ‘오늘도 새롭게’를 추구하는 시대의 흐름은 가정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다. 그러나 ‘연애는 결혼의 새벽, 결혼은 연애의 황혼’이다. 동지를 틀고 가족을 형성하여 살아가는 삶이란 부단히 되풀이되는 일상의 연속이기 십상이다. 이 따분함을 면해보려고 현대 가정이 열심히 고안한 새로운 ‘발명품’이 있다. 바로 각종 기념일들이다.

자신의 생일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결혼기념일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여성이 사랑하는 남성에게 사랑을 고백한다는 발렌타인 데이나 여성에게 사랑 고백을 받은 남성이 답을 보낸다는 화이트 데이 같은 ‘연인들의 날’까지 어느 틈에 가정으로 파고들었다. 연인들처럼 초콜릿이나 사탕을 주고받거나 부부가 오붓하게 외식이라도 즐겨야 ‘행복한 가정’ 축에 낄 정도다. 핵가정에서는 자신의 존재가치를 다른 가족들로부터 수시로 확인하고 싶어하는 데다, 이웃간의 경쟁의식도 뜨거워 한 집에서 어떤 기념일을

챙기기 시작하면 급속도로 전파되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복잡한 현대인들의 생활에서 늘어나기만 하는 각종 기념일을 일일이 기억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한 번 잊고 지나쳤다가는 일생동안 만회하기 어려운 것 또한 기념일이다.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축복해야 할 기념일들이 오히려 잊을까봐 두려운 대상으로 전락해 가고 있다.

내가 아는 한 남성은 아내의 생일을 잊을까봐 아예 월일을 연숫자로 암기했다. 그런데 그 날이 음력 12월3일이었던 것이 화근이었다. 123으로 기억해 두었으되 세월이 흐르면서 그것이 1월23일인지, 12월3일인지 헷갈렸던 것. 결국 그는 1월23일에 아내에게 선물을 건넸다가 “내 생일을 잊고 지나가더니 오늘이 도대체 어떤 여자의 생일인지 대라”는 통에 오히려 홍역을 치렀다.

그 뿐이라. 기념일을 깜빡 잊고 다른 사람과 약속이라도 한 날이면 ‘스위트 홈’은 커녕 찬바람이 췌췌 이는 얼음장으로 변한다. 심하면 이런 냉랭한 분위기가 며칠씩 이어지기도 한다. 이러니 ‘기념일 신드롬’이 생길 수밖에.

무미건조한 일상에서 기념일이 주는 설렘은 분명 생활의 활력이 된다. 그러나 그것이 또 하나의 부담으로 존재한다면 오히려 없느니만 못하다. 생활 속에서 얻어지는 진정한 행복이란 강요에서가 아니라 스스로 우러나오는 행동에서만 싹트는 것이므로. **11월 13일**